기획논문 ▮ 『항도부산』 제34호, 2017. 8, 1~34 http://dx.doi.org/10.19169/hd.2017.8.34.1

연산동고분군과 고대 부산

김 두 철*

| 목 차 |

Ⅰ. 머리말
Ⅱ. 연산동고분군의 조사 성과
Ⅲ. 연산동고분군과 고대 부산
Ⅳ. 맺음말

| 국문초록 |

연산동고분군은 황남대총 남분의 축조에 자극받아 가야 제 소국에 고총고분이 일시에 나타나는 시점에, 복천동고분군의 수장묘역 부족으로 이곳으로 옮겨와 조영되기 시작한 고대 부산지역의 유일한 고총고분군이다. 봉분 축조에 독자성이 있고 매장주체 시설은 복천동고분군을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그 首長權을 계승한 고분군이다. 고총고분의 피장자들은 이전의 복천동고분군이나 동 시기의 옥전고분군에 견줄 만큼 막강한 무장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고대의 부산지역에 대해서는 신라사 중심의 관점에서 4세기 중엽경에 이미 신라에 복속된 것으로 치부되어오기도 했으나 잘못된 인식이다. 고고학의 증거로는 부산은 4세기대에는 김해와 함께 전기가야의 중핵을 이루었다. 400년 고구려군 남정 이후 5세기 중엽경 신라(경주)로 영남의 패권 중심이 옮겨감으로써 세력이 약

*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 siwonkdc@naver.com

화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지역의 독자세력으로서 고총고분을 영위하였다. 적어도 고총고분이 조영되던 시점까지는 독자세력이다.

고총고분에 부장된 갑주나 마구 등 수장급의 심볼 유물의 분포권을 통해 보면, 그들은 신라와도 교류하면서 가야 각 소국과 보다 밀접한 교류를 하며 '가야'의 일원으로서 강한 정체성과 동질감을 공유하고 있었다.

주제어 : 연산동고분군, 복천동고분군, 고총고분, 가야, 신라, 중심과 주변, 분절국가, 지역수장권

Ⅰ. 머리말

연산동고분군은 황령산의 북쪽 지맥인 표고 254m의 배산에서 북으로 뻗은 구릉에 조영된 고분군이다. 해발 약 60m, 54m의 볼록볼록한 구릉의 정선부에는 부산지역에서 유일하게 남은 삼국시대의 고총고분이 축조되었고 사면부에는 중·소형 무덤이 조영되었다.

일제강점기부터 극심한 도굴의 피해를 입어 형체만 유지해왔으나, 최근 유적 정비작업이 진행되어 그에 수반한 발굴조사를 통해 그나마 봉분 축조 기술 등 많은 고고학적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정선부의 고총은 모두 18기이며 중·소형분은 136기가 조사되었으나 전체는 천여기를 상회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러한 발굴 성과를 기반으로 연산동고분군을 국가 사적으로 지정하기 위한 재조명 작업이 진행되었다. 필자도 이에 참여하여 두 번의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하고 그 성과를 정리해 정식 논문으로 발표하기도 하였다[1]. 현재로선 필자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한 터이나, 이번에 '항도부

1) 金斗喆,「高塚古墳時代의 蓮山洞古墳群」『考古廣場』19, 2016.

산'에서 '연산동고분군과 고대부산'이란 제하로 기획물을 계획함으로써 다시 본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획 의도에 따라 지금까지 연산동고분군 발굴 조사에 따른 성과를 간략히 조망해보고 연산동고분군이 조영되던 시기의 고대 부산지역의 정세를 정리해보기로 한다.

연산동고분군 고총의 조영은 극히 한정된 시기에 이루어지는데, 당시의 부산지역 정세에 대해서는 필자 스스로도 이전의 견해와는 전향적 관점을 갖게 되었다. 이는 후기가야 제소국의 성립과도 서로 연계하는 큰 구도의 가야사 복원과 관련하는 문제이므로 이를 명확히 해두고자 한다.

Ⅱ. 연산동고분군의 조사 성과

먼저 최근에 이루어진 연산동고분군 발굴조사의 조사 현황과 그 성과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에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간략히 정리한 것도 포함된다.

1. 조사 현황 : 폐고분군에서 국가지정문화재(사적)까지

연산동고분군이 언론을 통해 세상에 처음 알려지게 된 것은 일제 강점기에 3명의 도굴꾼이 고분발굴 취제위반으로 경찰의 취조를 받은 것이 1931년 6월 15일자 동아일보에 보도되면서이다. 당시에 도굴 피해가 극심하였음은 근자의 발굴조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그 일부가 지금 동경박물관에 소장된 '小倉 콜렉션' 목록 중에 포함되어 있다[2]. 불법 유

2) 동경국립박물관, 『小倉コレクション』, 1982. 이 목록 내 유물 중 보다 상세한 설명은

출되어 '傳'연산동 출토로 알려진 유물로는 차양주(119), 삼각판병유판갑(120), 관모형투구(121), 원두대도(122)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 차양주와 소찰초습 및 삼각판병유판갑은 穴澤咊光·馬木順一이나 末永雅雄이 논문과 책자로 소개함으로써 일찍이 주목을 끈 바 있다[3].

연산동고분군이 부산 유일의 고총고분이었음에도 이처럼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진 도굴의 피해로 인해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한 채 무관심 속에 방치되다시피 해왔다. 그러던 중 1987년 연말에 신라대학교(구 부산여대)박물관과 경성대학교 박물관이 부산시의 지원을 받아 각각 1기씩의 고총고분을 학술 발굴 조사하였다. M4호분과 M8호분이 그것이다. 석곽 내부는 예상대로 철저히 도굴되어 대부분의 부장품이 망실되었으나, 그나마 파편일지라도 갑주와 마구 등 귀중한 자료를 얻을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석곽의 구조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다. 즉, 복천동유적의 주능선에 조영된 주부곽식의 무덤이 연산동유적에서 단독곽으로 변화해가는 과도적 양상을 확인하였다.

이 이후에도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모두 6차례의 발굴이 이어졌다. 이 발굴들은 크게 2개의 획기로 나눌 수 있다. 먼저 1989년부터 2007년까지 행해진 3차례의 발굴조사는 터널이나 아파트 등 공사에 수반한 긴급 구제발굴의 성격을 띤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 2009년 연말부터 2013년 초까지 행해진 3차례의 발굴조사는 뚜렷한 목적을 가진 학술발굴 조사였다. 그 목적이란 연제구민과 부산시민이 힘을 모아 유적을 복원정비하고 나아가 이를 국가 사적으로 지정하려는 데 있어서 그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정선부의 고총고분의 하나인 M3호분은 표본으로 정밀조

다음의 책이 참조된다. 국립문화재연구소,『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오구라 컬렉션 한국문화재』, 2005.

3) 穴澤咊光·馬木順一,「南部朝鮮出土の鐵製鋲留甲冑」『朝鮮學報』76, 1975. 末永雅雄,『增補 日本上代の甲冑』木耳社, 1981.

사를 실시하였다. 또 내부 붕괴 위험이 있는 M7호분과 M10호분은 매장주체부를 발굴조사하고 정선부의 고총고분 18기의 존재와 윤곽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사면부에 조영된 소형무덤들에 대한 표본조사도 병행하였다. 이렇게 7차에 걸쳐 발굴 조사된 삼국시대의 분묘는 고총고분 5기와 중·소형묘 137기에 이르며 이밖에도 시대를 달리하는 다양한 성격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표 1> 연산동고분군 발굴조사 현황

일 시	조 사 기 관	조 사 내 용
1930년대	도굴 및 불법유출 (오쿠라콜렉션)	차양주, 삼각판병유판갑, 관모형투구, 원두대도 출토(傳)
1987.12. ~1988.02.	신라대학교박물관	M4호분
	경성대학교박물관	M8호분
1989.11.	부산박물관	토광묘 1기, 화장묘 1기 (예비군 참호공사)
2000.04 ~2000.07.	복천박물관	삼국시대 중·소형묘 22기, 조선묘 9기, 구상유구 등 (연산터널 공사)
2007.04. ~2007.06.	우리문화재연구원	삼국시대 분묘 17기, 조선묘 8기 (연산 자이아파트 건설 부지)
2009.12. ~2010.12.	부산박물관	청동기시대 집석유구 4기, 삼국시대 분묘 84기, 야외취사시설 3기, 조선묘 94기, 구상유구 1기, 건물지 4기, 가마 1기 고총고분 18기의 봉분범위 확인
2011.07. ~2012.06	부산박물관	M3호분, 중·소형묘 13기
2012.10. ~2013.01.	부산박물관	M7호분, M10호분

특히 주·부곽 석곽의 길이가 국내에서 최대급인 M3호분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봉분 축성법뿐만 아니라 연산동고분군의 성격과 정체성을 알려주는 다양한 정보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이를 토대로 유적을 국가사

적으로 지정하는데 탄력을 얻게 되었다. 부산대학교 박물관에서 주최한 2회의 학술대회를 통해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4] 유적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연산동고분군은 국가지정문화재(사적)으로 지정을 앞두고 있다[5]. 폐고분군에서 국가사적으로 승격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2. 조사 성과

이제 지금까지 조사된 연산동고분군의 조사 성과를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특히 참호공사에 수반한 1989년 조사를 제외한 6차례의 조사에서 확인된 삼국시대의 분묘인 고총고분 5기와 중·소형묘 136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고분군의 구성

盃山에서 북쪽으로 뻗어 고분이 조영된 구릉은 정선부가 대략 3개 정도의 작은 봉우리가 땅콩처럼 이어진 형상을 하고 그 사면부는 다소 가파른 경사를 이루고 있다. 고분의 조영은 여느 가야 고총고분군과 같이 정상부의 봉우리에 대형의 봉분을 가진 고총고분이 입지하고 사면부에는 소형 무덤들이 등고선 방향을 따라서 밀집되었다. 고총고분의 주변에도 소형 무덤이 딸렸음은 물론이다. 이들을 고총고분과 중·소형묘로 나누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1) 고총고분

고총고분은 능선부를 따라 줄지어 조영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3

4) 부산대학교 박물관,『연산동고분군의 의의와 평가』국제학술심포지엄 발표자료, 2013. 부산대학교 박물관,『연산동 고총고분과 그 피장자들』학술심포지엄 발표자료, 2016.

5) 이 유적은 1972년 6월 26일에 부산기념물 제2호(시도기념물)로 지정되어 오다가 이번 2017년 3월 2일~4월 1일에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예고를 거친 바 있다.

개의 봉우리를 중심으로 군집을 이루었을 가능성이 크다. 각 봉우리에는 각각 가장 큰 고분을 정점으로 연접하거나 주변에 인접해 조영되었다고 판단된다. 석곽 내부가 수습 조사된 M3호분, M7호분, M10호분은 각각의 군을 대표한다 할 수 있다. 이들 고분들에 대한 편년을 출토 토기와 마구 자료를 통해서 전고에서 <표 2>와 같이 행한 바 있다[6].

<표 2> 연산동 고총고분의 편년(안) [金斗喆 2016 전재]

3/4분기 전반	3/4분기 후반	4/4분기 전반	4/4분기 후반
福53호 [皇·南]	蓮 M10호	M3호	M7호 · M8호

배산 쪽에 가까운 남쪽 군의 M10호분이 5세기 3/4분기 후반, 구릉 말미 쪽인 북쪽 군의 M3호분이 5세기 4/4분기 전반, 중간에 해당하는 M7호분이 5세기 4/4분기 후반에 비정된다. 이로 보아 고총고분의 조영이 어느 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 중간 군의 M7호분은 이 군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시기적으로 선행하는 M6호분에 연접해 있다. 다시 말해 각 군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먼저 만들어진 무덤인 M3호분, M6호분, M10호분은 약간의 시차를 인정하더라도, 거의 동시기에 조영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 점을 염두에 둔다면 3개 봉우리에 각각 군을 이루며 조영된 무덤들은 제각기 家系를 반영하였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한편 M10호→M3호→M8호·M7호 무덤의 축조 순서를 참조했을 때, 묘형의 변화는 (복천동) : 이혈주부곽식→(연산동) : 단독곽식→이혈주부곽식→생토격벽의 이혈주부곽식(→)동혈주부곽식으로 되어 형식학적 변화와는 일치하지도 않을뿐더러 설명도 잘 되지 않는다. 이 현상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설명해두겠다.

6) 金斗喆, 앞의 논문, 2016.

하나는 복천동 수장묘 계열의 주부곽식 묘형은 연산동유적에서도 그 전통이 오랫동안 유지되었다는 점이다. 즉 복천동유적에서부터 '이혈: 주곽(목곽)+부곽(목곽)'→'이혈: 주곽(석곽)+부곽(목곽)'의 변화가 연산동유적에 이어져 →'이혈: 주곽(석곽)+부곽(석곽)'→'생토격벽의 이혈주부곽(석곽)', '동혈주부곽(석곽)'으로 변화해가는 계승적 관계이다.

또 하나는 복천동유적에서 연산동유적으로 수장묘 계열의 무덤이 옮겨올 단계부터 M10호분과 같은 단독곽식의 장법이 채용되어 이혈주부곽식(M3호분)이나 격벽 시설의 주부곽식 무덤과 병존하였다는 점이다. M10호분은 경주의 황남대총 남분에 후속하는 고분으로서 이 무렵부터 묘제의 다양성이 부산지역의 고분문화에 나타난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총고분은 묘광의 길이가 모두 5m급 이상이며 M3호분은 주부곽을 포함한 묘광의 길이가 18.24m에 달해 지금까지 조사된 무덤 중에서 국내 최대급이라 할 수 있다.

(2) 중·소형묘

사면부와 정선의 고총고분의 주변에 형성된 중·소형 무덤들은 모두 136기가 조사되었다. 그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연산동고분군 중·소형 무덤의 조사 현황

조사/보고	목곽	석곽	횡구석곽	옹관	소계
2000/2003	11	8	1	2	22
2007/2009	8	7		2	17
2009/2012	3	76	2	3	84
2011/2014	2	9		2	13
소계	24	100	3	8	136

연산동고분군은 5세기 후반대, 복천동유적의 경우 정선부를 따라 순차 조영되던 수장묘의 조영 공간이 끝나 39호분이나 53호분과 같이 빈 공간을 찾아 주·부곽식의 대형분이 조영되던 시점 이후에 형성된 고분군이다. 연산동고분군의 136기의 중·소형 무덤 중 18%에 가까운 24기의 무덤이 목곽묘이다. 하지만 이 목곽묘들의 대부분은 이른 시기의 무덤이 아니라 연산동 고총고분들의 조영시기와 같은 시기의 무덤들이다. 옹관묘들은 대부분 석곽묘의 배묘이다.

체육공원부지의 경우 무덤들은 남서사면에만 등고선방향을 따라 조영되었는데, 조선시대의 무덤들이 북서사면에 등고선과 직교하게 조영된 것과는 여러 점에서 대조를 이룬다. 묘광의 길이는 대부분 200cm대, 300cm대이며 400cm대급은 10% 정도인 14기에 지나지 않으며 500cm대급은 82호 석곽묘 1기뿐이다. 규모면에서도 봉분을 가진 고총고분과 중·소형묘는 차이를 보인다.

꺽쇠가 출토되어 석곽 내부에 안치되었을 목관의 존재를 유추할 수 있는 무덤은 2호, 8호, 82호, 104호, 112호묘 등 5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 고분은 모두 4m, 5m급의 무덤들로서 그나마 중형급에 속함을 알 수 있다.

아래 위로 2기씩 서로 연접해서 축조된 고분들, 즉 15호와 16호 목곽묘, 45호와 46호, 51호와 65호, 58호와 59호, 100호와 101호 석곽묘들은 한 쪽 고분(16호, 45호, 58호, 65호, 101호묘)에서만 무기류가 출토되어 부부의 무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2) 고대 토목기술의 정수

M3호분이 전면 발굴 조사되고 나서 봉분의 성토기법 등 고분 축조기술에 대한 많은 논고가 쏟아졌다[7]. 그만큼 성토에 독자적인 기술이 많

7) 신동조·박정욱, 「부산 연산동 고총고분군의 조사 방법과 축조 기술」『삼국시대 고총고

이 채용되었기 때문이다. 필자가 이에 대해 별도의 검토를 가한 것은 없으므로 보고서와 여러 논고들에 언급된 기술들을 대략의 축조 수순에 따라 간략히 나열해보는 것으로 한다.

먼저 구지표면은 삭평하여 평탄하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연약한 지반은 제거하고 풍화암반이 섞인 견고한 지반으로 치환하며 기저부를 다지고 성토하여 수평면을 조성한 후 본격적으로 고분을 축조하고 봉분을 쌓아간다.

봉분의 가장자리에는 삼각형의 토제를 만들고 봉분중앙으로 내사향하게 쌓는 성토법이 확인된다. 토제의 예는 다양하며 고령 지산동 73호나 75호분 등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이때 토제는 사질토나 굴착과정에서 생성된 풍화암반토를 이용하며 단면 삼각형, 반구형, 제형 등으로 쌓아 경사진 지형에서 큰 규모의 봉분을 견고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쌓기 위한 기술이다. M5호, M6호, M10호, M13호분에서 확인된다.

M3호분의 경우는 점토괴를 주요 성토재로 사용하는데, 하나하나씩 일정한 범위에 수평으로 쌓아 올려간다. 토층 단면에 크기가 일정하지 않게 나타나는 것은 각각의 점토괴가 놓여지는 위치가 서로 조금씩 어긋나기 때문이다. 또 물성이 서로 다른 성토재를 번갈아가면서 쌓아 성토층 간의 밀착도를 높임과 동시에 수분을 원활히 처리하는 교호 성토법이 많이 사용된다. 이 점토괴를 사용한 성토는 연산동의 대부분 고총에서 확인된다.

국내 최대 규모로서 장타원형의 봉분을 가진 M3호분의 성토를 위해서 두 곳에 작업로를 마련하여 봉분을 3등분으로 구획하면서 쌓아간 것

분 축조기술』, 진인진, 2013. 홍보식, 「고총고분의 봉분 조사 방법과 축조 기술」『삼국시대 고총고분 축조기술』, 진인진, 2013. 홍보식, 「蓮山洞古墳群의 調査 成果와 高塚古墳 築造 技術」『연산동고분군의 의의와 평가』, 2013. 홍보식, 「고분 구축기술로 본 연산동 고총고분」『연산동 고총고분과 그 피장자들』, 2016. 심현철, 「신라·가야 고총고분의 축조기술」『연산동고분군의 의의와 평가』, 2013. 박정욱, 「축조양상으로 본 연산동 고총고분의 성격과 특징」『부산박물관 연구논집』 20, 2014.

은 매우 독창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M3호분에서는 매장주체부를 만드는데도 다양한 토목공학적 작업이 행해졌다. 주·부곽의 벽체를 미장한다든가 벽체 최상면에 개석을 놓을 자리에 점토를 바르고 그 위에 각재를 둔 것 등이 주목된다. 이러한 방법은 복천동고분군의 11호분 등의 석곽묘에서도 확인되는데, 연산동고분군에서 더욱 계승, 발전시킨 측면이 있다.

특히 M3호분 주곽의 경우, 미장토가 벽체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목곽을 미장한 벽면에 밀착하여 설치하였다든지, 부곽에서 초본류를 혼입한 미장토를 사용함으로써 표면에 평직의 포를 압착한 흔적이 확인되는 등 미장토가 떨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던 점을 들 수 있다.

이밖에도 연산동고분군의 고총고분 축조에는 다양하고 독자적인 방법의 공법이 적용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둘 점은 최근 가야 각소국의 중심지 고분군에서 고총고분의 봉분성토에 대한 조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고령, 창녕, 합천, 함안, 부산 등 각지의 성토법이 차이가 있고 독창적인 면이 강하다는 사실이다.

후술하겠지만, 이들 지역의 고총은 거의 동시에 출현하게 되는데 매장주체시설과 봉분 성토에서 제각기 독창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고총의 축조라는 공통의 지향점은 같았지만, 그것을 구현하는 데는 각 지역의 공부가 수반되었다는 점은 하나의 기술체계가 기술자를 통하든지 하여 일원적으로 이식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체계가 없이 각 지역의 모방과 능력에 맡겨졌다는 사실로서 눈여겨 볼만하다.

3) 연산동고분군의 무장력

연산동고분군의 고총들은 봉분을 통해 어느 정도 고고학적 정보는

확보할 수 있었지만, 매장주체부의 경우는 철저한 도굴로 인해 매장 당시의 부장품목이 제대로 남아 있다고 할 수 없다. 사면부의 중·소형 고분의 경우도 삭평과 도굴의 피해는 심한 편이다. 그나마 고총고분의 경우 비록 도굴되었다 하더라도 바닥에 놓였던 녹이 쓴 철기유물은 그 단편이 남아 있어 이를 통해 약간의 정보를 얻을 수는 있다.

물론 이 역시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이들 철기유물이 남겨준 정보를 기초로 여기서는 연산동고분군 피장자들의 무장력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기로 한다. <표 4>는 연산동고분군에서 무장이 출토된 고분의 보유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 4>를 보면 역시 무구류나 마구류는 구릉 정상부의 고총고분에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소형묘 중 무구나 마구를 갖춘 103호묘, 105호묘는 모두 구릉 정상부 고총고분의 주변에 조영된 무덤들이다. 묘광의 길이도 400cm 이상급의 중형묘에 해당한다. 그들의 입지를 호위계층이라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결국 당시 무구나 마구 등 주요 무장은 구릉 정상의 지배계층이나 차상위층에 집중되었다.

이에 비해 일반민에 해당하는 사면부 중·소형묘의 무장력은 상대적으로 매우 약세이다. 지배계층이 보유한 엘리트 무장을 갖추지 못하였음은 물론이고 기타 장병, 단병, 사병의 무장도 두드러지지 않은 편이다.

<표 3>의 조사고분 중 옹관묘를 제외하더라도 부산(2014)에서 11기 중 4기, 복천(2003)에서 20기 중 7기, 우리(2009)에서 15기 중 2기, 부산(2012)에서 81기 중 21기에서 출토되는데 지나지 않는다. 부산(2012)의 경우 철촉 1점만 출토된 무덤을 빼면 15기 정도이다. 어쨌든 중·소형묘는 옹관묘를 뺀 128기 중 무기류 보유 고분은 모두 34기이다. 이는 民의 고분군인 김해 예안리유적과 비교하더라도 우세한 편은 아니다.

이 연산동고분군의 민의 무덤에서는 농공구에 해당하는 철부도 12기의 무덤에서, 철겸도 9기의 무덤에서만 출토되어 이들이 정상부의 고총

<표 4> 연산동고분군의 무장

유구호수	무구류	마구류	장병		단병		사병		보고서
			모	물미	검	도	촉	성시구▲ 궁금구▼	
M3	●	●	12		2	8	132	▼	
M10	●	●	4	2	3	2	57	▲	
M8	●	●	4			1	1		
M7		●					7	▲	
M4							7	▲	
M2	●			1			3		
M1						1	8		미조사분
M6						1			
103호묘(석)	●	●				1			
105호묘(석)	●						1		부산(2014)
104호묘(석)			1			1			
111호묘(목)						1			
1호묘(석)			1			1	15		
8호묘(석)			1						
15호묘(목)			1						
6호묘(석)						2	9		복천(2003)
16호묘(목)							5		
7호묘(목)							4		
20호묘(목)							1		
석곽묘1호			1						우리(2009)
석곽묘7호			1						
24호묘(석)			1	1		1	8		
82호묘(석)			1			1	1		
58호묘(석)			1				4		
84호묘(석)			1				3		
65호묘(석)			1				2		
90호묘(석)			1						
45호묘(석)				1		1	15		
29호묘(석)				1			8		
96호묘(석)					1				
93호묘(석)							16		
86호묘(석)							9		부산(2012)
23호묘(석)							4		
43호묘(석)							3		
87호묘(석)							2		
101호묘(석)							2		
22호묘(석)							1		
33호묘(석)							1		
48호묘(석)							1		
66호묘(석)							1		
80호묘(석)							1		
98호묘(석)							1		

※ 1. (목)은 목곽묘, (석)은 석곽묘임. 2. M2호,M1호,M6호분은 정식수습고분이 아님. 3. 보고서의 앞은 발굴기관의 약칭. 뒤의 ( )안은 보고서 출간년임. 참고문헌 참조바람. 4. 고총고분은 보고서는 생략함. 5. 부산(2014)는 정상부 고총고분의 주변에 조영된 중·소형묘임. 6. M3호분의 판상철모 13점은 수치에 제외함.

고분의 주인공들과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지 그 성격을 규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는 앞서 언급한 파괴의 탓도 일부 있겠으나, 그들의 생계방식 등 역할에 대해서는 향후 이 고분군의 소형묘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기를 기대할 따름이다[8].

어쨌든 당시 지배층이 보유하였던 무장력은 괄목할만하다. M2호분의 도굴갱에서 수습된 횡장판병류판갑을 포함하여 M3호분의 삼각판혁철판갑, M8호분의 장방판혁철판갑과 삼각판병류판갑, M10호분의 삼각판혁철판갑, 오쿠라콜렉션의 傳연산동출토 삼각판병류판갑 등 단일 고분군으로서는 상당한 양의 판갑이 출토되어 그 무장력은 이미 확인된 바이다[9].

이밖에도 이들 고총고분에서는 찰갑(M3호, M8호, M10호), 경갑(M2호, M3호, M10호), 비갑(M3호, M8호)과 투구로서 종장판주(M2호, M3호, M8호, M10호)와 충각부주(M3호, M8호)의 잔편이 확인되었으며 마주(M3호, M8호)와 마갑(M3호, M10호)편도 출토되었다. 수습된 고총고분에서는 대부분 상당한 수준의 무장력을 보여주며 그 수준은 이전 복천동고분군이나 동 시기의 옥전고분군에 견줄만하다.

Ⅲ. 연산동고분군과 고대 부산

이제 연산동고분군의 사적 위치에 대해 조명해 보도록 하겠다. 우선 부산 지역 내에서의 위치를 점검하고 나아가 후기가야 시기 영남지역 내에서의 위상과 역할을 살펴본 후, 그 의미에 대해서 당시의 시대상과

8) 최근 가까운 동래구 범어천변의 발굴조사에서 패분층이 확인되어 당시는 이곳 가까이까지 해수면이 들어왔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싶다.

9) 이러한 대금식판갑류를 왜계판갑이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필자는 비판적 입장을 취하나 지면 관계도 있어서 별고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결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1. 복천동고분군과 연산동고분군

연산동고분군이 조영되던 시기의 부산지역을 가야로 보는냐, 신라로 보느냐 하는 관점은 연구자에 따라 입장을 달리 하는 학계의 하나의 논쟁점이 되어왔다[10]. 여기서는 먼저 연산동고분군이 성립하는 시점에 대하여 복천동고분군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봄으로써 필자의 기존 관점을 다시 확인하고자 한다.

연산동고분군은 복천동고분군에서 수장묘의 축조 공간이 부족해지자 가까이 범어천(온천천의 옛이름)의 대안에 있는 이곳으로 묘역을 옮겨온 고분군이란 것은 이미 지적하였다[11]. 그것은 시기적 문제와 양 유적에서의 묘형과 매장주체 시설에서의 계승성과 공유성 때문이다.

먼저 시기적 문제를 보면, 조사된 소형묘들의 조영시기는 고총고분의 조영시기와 대부분 일치한다. 다시 말해 이 고분군의 형성 자체가 이곳에 고총고분이 조영되면서 개시되었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3그룹의 고총고분 중 가장 빨리 축조된 고분이 연산동 M10호분이다. 그 시기는 5세기 3/4분기(후반)로서 황남대총 남분의 축조에 자극 받아 영남 각지에서 고총고분이 유행처럼 만들어지던 시기와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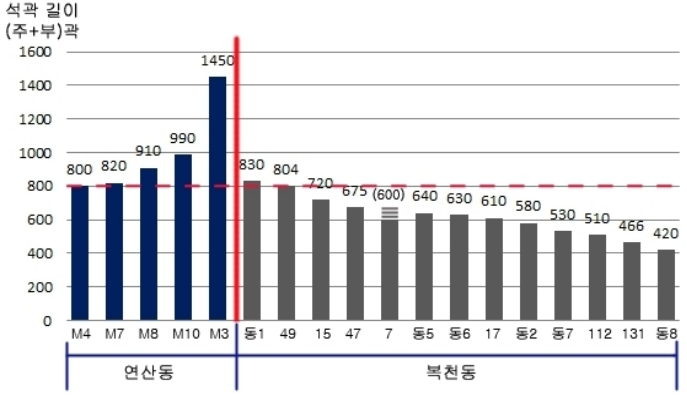
당시의 복천동고분군에서는 열 지어 순차 조영되던 수장묘가 복천동 10·11호분으로서 구릉의 끝에 이르러 더 이상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자 이어지는 39호분이나 53호분과 같은 무덤들이 구릉 정선의 빈 공간을 찾아 조영되고 있었다. 이런 차제에 당시 고총고분의 축조가 유행하게 되자 지역의 유력세력으로서 수장권을 공고히 하고자 하였던 지배계층

10) 연산동 고총고분군의 성립에 대해서는 복천동고분군에서의 묘역 이동으로 보는 견해와 신라에 의한 새로운 묘역의 형성으로 보는 두 가지 견해가 제시되어 왔다.
11) 金斗喆, 「연산동고분군과 복천동고분군」『연산동고분군의 의의와 평가』, 2013a.

들이 고총을 축조할 수 있는 새로운 묘역을 모색하게 된 것은 너무나 자연스런 현상이다.

다음으로 복천동고분군과 연산동고분군의 계승관계이다. 이 문제는 전장에서도 잠깐 언급하였듯이, 매장주체 시설에서의 주부곽식 무덤이 목곽·목곽→석곽·목곽→석곽·석곽으로 변화하는 것과 묘형에서 이혈주부곽식→격벽의 주부곽식→동혈주부곽식으로 변해가는 것이 복천동고분군과 연산동고분군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는 점으로 대변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두 유적 간의 장법에서의 공통성이다. 주부곽식무덤을 하나의 구덩이 안에 설치하고 그 사이에 격벽을 설치하는 방식이 연산동 M4호분, M7호분에 보이나 이는 복천동 東5호분, 東6호분에서도 보인다. 또 연산동 M10호분은 중간에 격벽시설이 없어서 단독곽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바닥면과 개석의 단 차이, 시상석의 유무등을 고려하면 엄격히는 주부곽식 무덤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무덤의 북단에는 구덩이를 파고 대호를 매납해 부장갱을 마련한 흔적이 확인된다. 이 시설



<도 1> 연산동·복천동고분군 대형 석곽묘의 길이 비교
[金斗喆 2013a 전재]

역시 기존의 복천동고분군에서 많이 보이던 것이며 복천동의 대형 단독 곽식 석곽묘인 15호분, 47호분 등등에도 보인다.

이러한 공통성은 두 유적을 조영한 집단이 결코 이질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천동 東1호분에서 금동관이 출토되는 등 복천동고분군에도 수장급 세력이 잔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분기 현상을 더 이상 고고학에서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다만 두 집단의 위세 차이는 고분의 규모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 석곽의 길이를 기준으로 나타낸 <도 1 >이 두 유적의 상대적 위계 관계를 잘 보여준다.

이상을 정리하면 복천동고분군에서 수장묘의 조영 공간이 부족하게 되자 주력이 연산동고분군으로 묘역을 옮겨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연산동고분군과 고대의 부산

연산동고분군이 조영된 고대의 부산이 가야인가 신라인가, 아니면 언제 가야에서 신라로 전환하였는가 하는 문제는 고고학뿐만 아니라 고대사까지도 포함해 오랜 논쟁이 되어오던 부분이다. 필자는 연산동고분군에 고총고분이 조영되던 시기까지는 가야의 독자세력으로 파악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12].

그러나 이 문제의 해법은 시작부터 서로 관점이 다른 방향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학계에서 의견의 통일을 보기가 요원하다. 어느 입장이 보다 타당한가 하는 것을 따져야 하는 논점으로서 고고학에서의 편년론까지 거론해야 되는 뿌리 깊은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지적한 바 있지만[13], 다시 재론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필자의 관점을 명확히 해두고자 한다.

12) 金斗喆, 앞의 논문, 2016.
13) 金斗喆, 「부산지역 고분문화의 추이」『항도부산』 19, 2003.

1) 신라사 중심의 해석

가야사에 대한 기록은 극히 영성하다. 따라서 신라에 관한 승자의 기록을 확대 해석해 가야를 재단하는 경우가 많다. 고대 부산지역의 정체성에 관한 이해도 대표적 사례이다. 고대사에서 시작된 일방적 해석이 일부 고고학자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러한 분위기를 주도해왔다.

고대사에서의 관점은 너무도 간단하다. 삼국사기 '奈勿尼師今' 26년(381)조에는 '亦猶中國時代變革 名號改易 今焉得同'이란 구절이 있다[14]. 신라 사신 衛頭가 중국 前秦의 符堅에게 신라의 사정을 전한 내용의 글귀에서 단초가 시작된다.

末松保和는 신라가 중국에 사신을 보내고 '시대변혁 명호개역'을 외칠 정도이니 4세기 중엽경에는 신라가 舊辰韓지역에 대한 복속을 마무리하였다고 보았다[15].

朱甫暾은 이를 받아 弁辰瀆盧國에 속했던 부산지역도 내물마립간대(356-402)에는 신라 영역화 하였다고 보았다. 사로국의 주변소국에 대한 정복기사를 들고, 그 기년을 그대로 따르기는 어려워도 수정안의 입장에서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중반에는 사로국에 의한 정복 사업은 일단락되었으며 이는 문헌사학계의 대세라고 주장하였다[16].

李熙濬은 이러한 문헌사의 입장을 적극 받아들여 고고학 편년을 재조정하며 신라고고학을 해석하려 하였다[17]. 씨가 제시한 편년안은 기존 李盛周[18]의 낙동강동안양식 토기 편년안을 앞으로 늘여놓은데 지나

14)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내물이사금 26년조
15) 末松保和, 「新羅建國考」『新羅の政治と社會』(상), 1995.
16) 朱甫暾, 「4~5세기 釜山地域의 政治的 向方」『복천동고분군의 재조명』, 부산광역시립복천박물관, 1997.
17) 李熙濬, 1998, 『4~5세기 新羅의 考古學的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1998; 『신라고고학연구』 사회평론, 2007.
18) 李盛周, 「洛東江東岸樣式土器에 대하여」『제2회 영남고고학회학술발표회 발표 및 토론요지』, 1993.

지 않는다. 이를 위해 그가 행한 가장 핵심 작업은 황남대총 남분의 피장자를 402년에 薨한 내물왕에 비정한 것이었다. 따라서 상하 교호투창 고배를 지표로 하는 낙동강 동안(이동)양식 혹은 신라양식토기의 성립은 기존의 5세기 초에서 4세기 중엽으로 소급하게 된다.

앞서 문헌사에서의 주장과 합치시킨 셈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며 부산에서는 복천동31·32호분에서 가장 빠른 형식의 상하 교호투창 고배가 출토되므로 부산은 4세기 중엽경에 이미 신라에 편입된 셈이 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필자는 황남대총 남분은 눌지왕(458년 薨)에 비정된다는 사실[19]과 상하 교호투창 고배의 성립은 오히려 부산지역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더 높으며 이들 토기를 지표로 신라의 시공간을 정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20]을 명확히 한 바 있으므로 재론을 피하고자 한다.

신라의 적석목곽묘를 마립간시대의 무덤으로 보고, 마립간을 『삼국사기』에 전하는 눌지왕 대부터가 아니라, 『삼국유사』에 전하는 내물왕 대부터라고 간주하며 현재 최초의 적석목곽묘인 황남동 109호분 3·4곽을 4세기 대에 편년하는 것은 신라고고학자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그들의 또 하나 공통된 인식은 상하교호 투창고배는 신라(양식)토기이며 이 토기가 출토되면 모두 신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이다.

모두 영성한 기록을 바탕으로 추론을 거듭한 초기기록 수정론자들과 그에 편승한 고고학자들의 접목이 만들어낸 편년체계이다. 이들에게는 광개토왕 비문에 전하는 경자년(400년) 고구려군 남정의 의미를 어떻게든 무시 내지는 무력화하고 맹목적이라 할 만큼 관련 주장들을 비판해야 하는 과제가 안겨져 있다. 이 관점에 서서는 고고학적으로 남부사회에서 일어난 어떠한 획기와 사회변동도 설명할 수 없다고 본다.

19) 金斗喆, 「皇南大塚 南墳과 新羅古墳의 編年」『韓國考古學報』 80, 2011.
20) 金斗喆, 「신라·가야의 경계로서 경주와 부산」『嶺南考古學』 70, 2014.

2) 가야 중시의 해석

영남지역에 상하 교호투창 고배를 포함한 신식 도질토기가 성립하게 되는 계기는 역시 경자년에 일어난 고구려군의 남정이다. 이로 인해 야기된 사회변동 중의 하나로 교호투창 고배가 만들어진다. 신라고고학에서 주장하는 4세기 중엽경과는 많은 시차가 있다.

사실 김원룡의 '가야토기'와 '신라토기'에 대한 초보적인 분류 이래[21], 이를 원통형장경호류도 포함하여 그 분화시기를 논하고 나아가 이들 토기를 통해 정치적 해석에까지 활용한 단초는 신경철의 일련의 논고에서 시작한다[22].

상하 교호투창 고배를 신라토기로 파악함으로써 복천동고분군에서는 5세기 초의 31·32호분에 신라적 요소가 잠깐 보이다가 5세기 중엽의 이른 시기에 완성된 최고식 신라토기가 21·22호분에 처음 보이며 5세기 중엽의 10·11호분에서 신라식토기가 완전 정착한다고 보았다.

신라토기문화가 5세기 초부터 차츰 강세를 보이는 현상을 당시의 신라의 확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하였다. 5세기 중엽의 늦은 시기인 복천동 1호분 이후부터는 신라토기 일색이 되어 이때부터 부산지역이 신라의 강력하고도 직접적인 통제 하에 놓였다고 해석하였다[23].

신식도질토기의 출현을 고구려군 남정 이후로 보는 편년 관점을 취하긴 하였으나, 당시로서 토기문화를 통해 과도하게 정치적 해석을 한 이 일련의 논고는 이후 대부분의 신라고고학자들이 '교호투창고배≒신라토기≒신라화 내지 신라영역'이라는 등식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한 셈이 되고 말았다.

---

21) 金元龍, 『新羅土器의 硏究』 국립박물관총서 甲 제4, 을유문화사, 1960.

22) 鄭澄元·申敬澈, 『東萊福泉洞古墳群 I 』본문, 부산대학교박물관, 1983. 申敬澈, 「新羅土器의 發生에 對하여」『韓日古代文化의 諸問題』, 1986. 申敬澈, 「三韓·三國·統一新羅時代의 釜山」『釜山市史』 제1권, 부산시사편찬위원회, 1989.

23) 申敬澈, 앞의 논문, 1989, 422~423쪽

이에 대해서 필자는 교호투창의 品자형토기를 모두 신라토기로 보는 시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구려군 남정 이후 부산과 경주는 물론 김해, 창원, 함안 등의 낙동강 서안지역까지도 토기 생산에서 과도기를 거쳐 신식도질토기단계로 전환하는데, 그 변화에 오히려 부산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고 보았다. 경주다운 독자의 토기는 신라중기양식토기에 해당하는 황남대총 남분 단계에 완성된다고 보았다[24].

다만 고대 부산지역이 가야에서 신라로 전환하는 시점을 부산 고유의 토기인 10·11호분 단계(5세기 2/4분기 후반)의 2단각고배가 역시 '5세기 후반의 부산식'인 3단각고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구하고자 하였다[25]. 안정된 형식에서 새로운 형식으로 전환한 점을 고려한 것이나, 한편으로는 복천동고분군의 전통 묘제인 凹床에 통나무관을 사용하던 것에서 자갈을 깐 平床으로 전환한 것도 주요한 변화의 하나로 보았다[26].

이 시점에 '가야에서 신라로' 이행한 것은 복속개념이 아니라, 신라연맹체의 일원으로서 신라세력권 내에 편입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때부터 부산지역이 경주세력의 간접지배 내지는 간섭을 받게 되었다고 보았다.

하지만 최근 전기가야의 해체 이후 후기가야의 각 소국이 성립하는 과정과 고총고분의 조영 및 지역 간 교류관계를 살펴보면서 경주세력과 주변지역과의 관계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 그것은 부산지역은 연산동고분군에서 고총고분의 조영이 끝날 때까지 독자의 세력을 유지해갔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지면에서 발표한 바가 있으나, 다음 항들에서 개략적으로 정리해두고자 한다.

24) 金斗喆, 앞의 논문, 2003; 앞의 논문, 2011; 앞의 논문, 2014.
25) 金斗喆, 위의 논문, 2003.
26) 金斗喆, 「前期加耶와 新羅」『부산대학교 고고학과 창설20주년 기념논문집』, 2010a.

3) 전기가야에서 후기가야로

경자년 고구려군의 남정이 남부사회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광개토왕 비문에는 전하지만 우리의 고대 정사로 간주하는『삼국사기』에는 언급 자체가 되어있지 않은 이 일련의 사건에 대하여 신라사 중심의 연구자들은 의도적으로 무시하려고도 하나 고고학에서 확보된 증거는 너무나 뚜렷한 족적을 남기고 있다[27].

전기가야의 맹주국이었던 김해 대성동유적과 부산 복천동유적에서의 묘제의 변화, 신식도질토기의 성립, 고구려 영향의 중장기병전술의 본격 전래, 그에 따른 마구 등 전비확충을 위한 영남지역 사회의 대응전략 등등 뚜렷한 획기를 보이며 남정 이전과 이후의 사회는 차이를 보인다. 또 영남지역은 새로운 세력재편을 보인다.

주지하듯이 고구려군의 남정은 신라의 요청을 받아 이루어졌으며 그 대상은 낙동강하구역에 있었던 전기가야의 중심지일 수밖에 없다. 이해득실을 따진다면, 남의 힘을 빌려 상대를 제압한 경주세력이 가장 이득이 크며 타격 대상이었던 낙동강하구역의 피해가 컸음은 명확하다. 실제 이후 경주세력은 성장하여 영남지역의 패자가 된다.

반면 전기가야 맹주국이었던 김해 대성동고분군에서는 수장묘의 축조가 중단된다. 전기가야 연맹의 해체인 셈이며 그 시점은 5세기 1/4분기이다[28]. 고구려군의 직접 타격이라기보다는 그 타격으로 구심점을 잃은 전기가야 사회의 자체 분열에 의한 해체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인식은 앞서 언급한 대성동유적과 복천동유적에서의 많은 변화가 이 5세기 1/4분기의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본다.

---

27) 신라연구자들은 남정의 증거로 영남지역에 남겨진 고구려 문물에만 주목하여 그것의 부재를 이유로 남정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필자는 고구려군의 남정은 정복이 아니라 정벌에 주력하던 광개토왕 대의 전술대로 상대에 타격을 주고 2선으로 빠졌기 때문에 보급품을 직접 찾기보다는 그 영향을 받은 상대진영의 변화를 읽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28) 이 시점은 기존의 고고학 연대관과 일치한다.

전기가야의 해체에 있어서도 두 유적 세력의 대응전략은 판이하였다. 김해와 달리 부산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하였다. 5세기 전반의 고고학적 많은 변화가 이 복천동유적 세력에 의해서 주도되었다[29]. 이 주도권이 완전히 경주로 넘어가게 된 것의 상징이 황남대총 남분의 축조이다. 비록 상대적으로 세력은 약해졌지만 복천동고분군의 수장권이 계승된 곳이 연산동고분군이다.

문제는 맹주국 대성동고분군 세력의 추이이다. 전기가야의 많은 주력이 일본열도로 건너가 일본 중기고분 사회의 성립에 큰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신경철에 의해 이미 주장되었다[30]. 필자 역시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밖에 仇衡王에 이르기까지 왕계자손이 고고학적으로 보아 명목상이며 상징적 존재로서 금관국(김해)에 남아 있었겠지만, 또 하나의 주력세력은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 내륙으로 나아간다. 현재로선 그들 여정의 귀착지는 또 하나의 대가야라 불리는 高靈이다.

필자는 최근 棺釘과 꺾쇠 및 棺床을 통해서 매장주체부 내의 목관의 존재를 밝히고 이를 墓型과도 관련시켜 후기가야 제소국의 성립과정을 규명한 바 있다[31]. 각 유적에서 관상이나 관정·꺾쇠를 가진 무덤은 그렇지 못한 무덤에 비해서 무덤의 규모가 훨씬 크고 부장품도 풍부하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목관 자료의 출현 이전과 이후의 무덤과 부장품은 현

29) 대부분의 신라고고학자들은 앞서 언급한 그들의 관점 때문에 복천동유적에서 출토되는 5세기 전반대의 문물 자체를 신라문물로 파악한다. 하지만 어떤 고고유물이든 경주 출토품이 복천동 출토품보다 시기적으로나 형식적으로 앞선 것은 없다. 아직 출토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항상 주장한다. 무엇보다 복천동유적에서 4세기 대에서 5세기 대로의 계승관계, 또 5세기 전반대의 묘제 등에 보이는 부산과 경주의 뚜렷한 차이에 대한 필자의 주장에 누구도 근거 있는 반박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30) 申敬澈, 「金海大成洞·東萊福泉洞古墳群 點描」『釜大史學』 19, 1995; 「日本 初期 須惠器의 發現」『東아시아 속의 韓·日 關係』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97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1997.

31) 金斗喆, 「棺床과 前期加耶의 墓制」『韓國考古學報』 75, 2010b; 「加耶 轉換期의 墓制와 繼承關係」『考古廣場』 13, 2013b.

격한 성격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사회변동의 지표로 삼을 수 있었다.

이에 따르면 대성동유적에서 수장묘의 축조가 중단되었을 무렵인 5세기 2/4분기에 접어들면서 함안에 아라가야가 성립하며, 다음으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 5세기 2/4분기 후반~3/4분기 전반 무렵에 창녕의 비화가야와 합천의 다라국이 성립한다. 더욱 강을 거슬러 올라가 마지막으로 5세기 3/4분기 후반에 고령의 가라국, 즉 대가야가 성립한다[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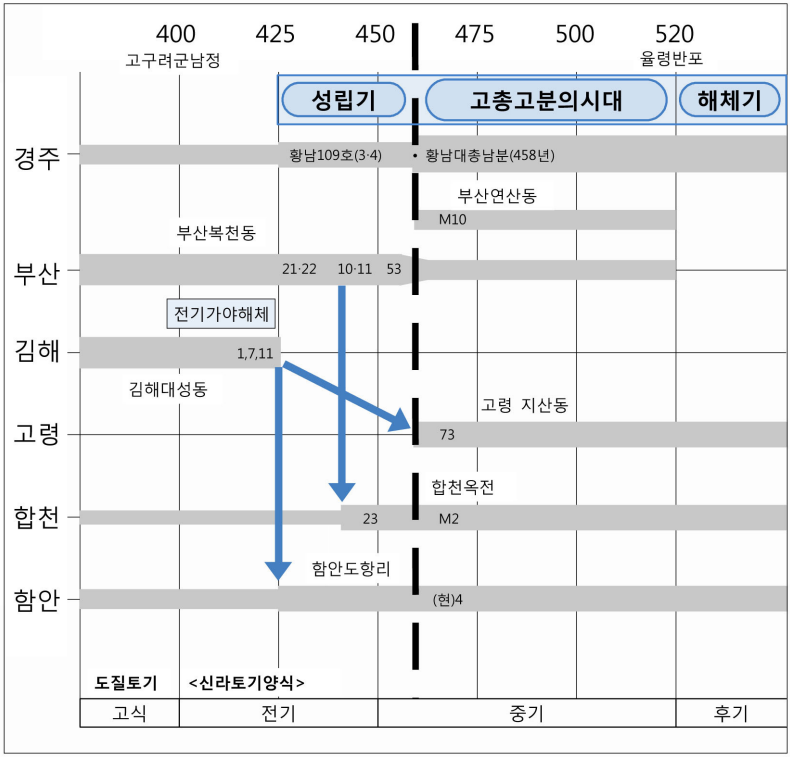
이들 중 阿羅國은 토착세력이 유민을 흡수하여 사회 변화를 수용하였으며 多羅國은 복천동 계열의 무장세력이 미미하였던 기층민을 누르고 신흥세력으로 자리하였으며 加羅國은 대성동 계열의 유민이 마지막으로 신흥국을 세운 것으로 파악하였다.

4) 연산동고분군과 고대 부산

앞서 후기가야의 제 소국이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순차 나라를 세운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런데 아라국과 다라국이 성립할 때는 처음부터 고총고분으로 시작하지 않는다. 가라국만이 지산동 73호분과 같이 처음부터 고총고분으로 시작한다.

하지만 이 지산동에 초기 고총인 73호, 75호분이 조영될 무렵에는 아라국, 다라국, 비화국도 수장묘는 모두 일시에 고총으로 전환하고 있다. 말이산 34(현4)호분, 옥전 M2호분, 계남리 1호, 4호분 등등이 그 예이다. 연산동 M10호분도 마찬가지이다. 모두 5세기 3/4분기(후반)에 비정된다.

32) 지금까지 필자는 남정 후 전기가야의 한 축이었던 복천동 세력의 영남지역 내에서의 역할을 중시하고, 후기가야의 핵심인 대가야의 성립을 기준으로 하면서 신라의 성장까지도 고려하여 전기가야와 후기가야의 획기를 대략 450년을 전후한 시기에서 구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대성동고분군에서 수장묘가 축조 중단되면서 실질적인 전기가야 연맹이 해체되고 그 직후부터 아라가야를 비롯한 후기가야의 소국들이 성립하기 시작하므로 이제부터는 기존의 주장은 철회하고 전기가야와 후기가야의 획기를 5세기 1/4분기와 2/4분기를 경계로서 삼고자 한다.



<도 2> 高塚古墳과 영남지역 제 세력의 추이 [金斗喆 2013a 전재]

이 사실에 주목하여 필자는 이러한 현상이 눌지왕(458薨)의 무덤인 황남대총 남분 축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를 모방하였기에 가야 각국의 초현기 고총고분의 봉분 축조방법이 제각기 독자성을 띠고 있다는 사실도 그 반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후기가야 제소국의 고총고분은 눌지왕이 훙한 시점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가야 제국의 초현기 고총고분에서는 대부분 황남대총 남분에서 처음 정형화된 신라계 마구-즉, 편원어미형행엽

<표 5> 가야 주요유적의 신라계 마구(행엽・운주) [金斗喆 2016 전재]

지역	유적명	편원어미형 행엽	입주부운주	무각소반구형 운주
함안	도항리	현8호, 현15호, 현22호		현8호, 현15호, 현22호, 말이산34호
합천	옥전	M2호,M1호,35호,12호		M1호,35호,12호
창녕	계남리/교동/송현동	1호,4호/1호,3호/	/7호/7호	1호,4호/1호,3호/
고령	지산동	73호		73호
부산	연산동	M10호	M10호	

과 함께 입주부운주 내지 무각소반구형운주의 조합-가 출토된다. 이러한 유물 출토 현상을 혹자들의 해석방법처럼 신라의 세력 확장으로 이해하게 되면 대가야로 대표되는 후기가야는 성립부터 신라의 영향 아래에 있었던 셈이 된다. '후기가야' 무용론을 주장하지 않고는 설명하기 힘들다.

따라서 필자는 당시 5세기 중엽경의 영남지역을 단순하게 가야와 신라의 2분법으로 해석하는 논을 지지하지 않는다. 당시 영남사회를 경주를 중심으로 한 '중심과 주변'의 관계로 파악한다. 가야전기 때 중심이었던 낙동강 하구역에 있었던 '김해와 부산' 세력의 패권이 고구려군의 남정을 거치면서 신라 눌지왕 때에는 확고히 '경주'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한다.

이를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당시의 경주 역시 아무리 강력하였더라도 하나의 소국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 소위 상하 교호투창 고배를 지표로 한 신라의 영역도는 당시의 정세를 과대 포장한 것이다. 지증왕 때에 이르러 국호를 '新羅'로 부르기로 통일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구태여 기록에 그러한 언급이 있는 이상, 그 이전을 '斯盧國'이나 '斯羅國'으로 불러도 좋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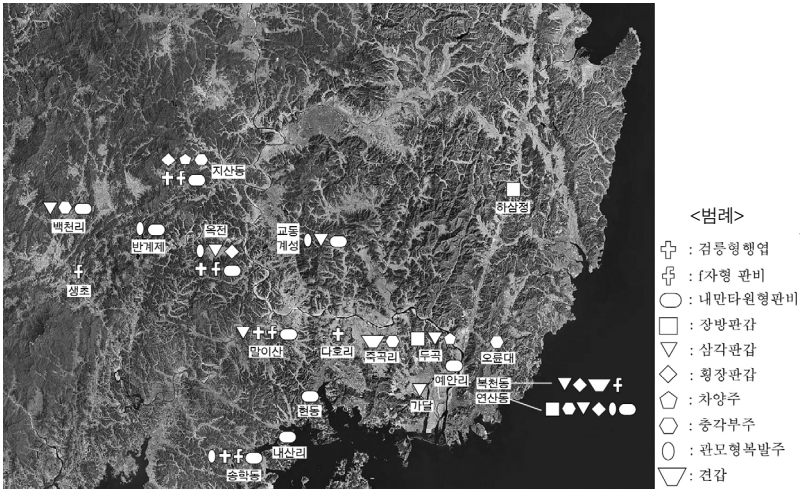
가야와 신라의 이분법적 개념은 그 이후 갓 터를 잡은 후기가야 소국들이 성장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됨으로써 싹트게 되었다고 본다.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상징의 하나로서 가야계 마구, 특히 마장에서 중요한 검능형행엽(혹은 f자형판비)의 채용을 들 수 있다.

당시의 연산동고분군에서 마구출토 상황을 보면, M10호분에서 신라계의 편원어미형행엽을 채용하였다가 M3호분이나 M8호분에서 검능형행엽으로 바뀐 것은 그런 의미에서 주목된다. 그 전환의 시점도 다른 가야 소국들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연산동고분군에서 고총고분 성립기에 신라적 요소가 일부 보였더라도 이는 다른 가야 소국들과 견주어도 큰 차이는 아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토기 등에서 부산지역 고유의 지역성을 갖고 있으며, 마구나 갑주 등 등 상위층이 보유한 심볼 유물의 분포관계에서 가야 제국들과 강한 연계성을 갖고 있는 것은 이 고분군의 정체성을 잘 대변해준다<도 3>. 특히 창녕식토기의 분포에서 알 수 있듯이 김해를 제외하고 낙동강 수계의 세력 중 가장 가까이 있는 창녕지역과의 교류는 두드러진다.

결론으로 말하면, '고총고분시대' 연산동고분군의 수장층은 신라의



<도 3> 후기가야 주요 갑주와 마구의 분포도

<도 4> 후기가야 지역양식 토기의 분포권

경주세력과도 교류관계를 가지면서도 전기가야의 복천동 세력을 계승한 가야의 일원이란 강한 정체성 아래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 시기는 연산동고분군의 구릉 정선부에 고총고분이 조영되던 시기까지이다. 정선부의 연접된 고총고분이 아직 모두 조사되지는 않았지만, 구릉 주변에 조영된 중·소형 고분을 통해서 보면 신라 후기양식토기가 유행하기 전까지이다. 고분군의 폐절 시점을 가야와 신라 간의 결혼동맹이 파탄(529년)나고 금관국이 항복(532년)한 시점 사이로 추정한 바 있다.

Ⅳ. 맺음말

지금까지 연산동고분군의 발굴조사 현황과 성과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그것을 토대로 고대 부산지역이 처했던 당시의 정세에 대하여

필자의 근간의 논고와 그를 통해 얻어진 지견을 정리하여 쉽게 설명하였다.

정리하자면 연산동고분군은 복천동고분군의 수장권을 계승한 세력으로서 고총고분이 축조되던 시기까지는 독자 세력으로서 신라와도 교류하면서 '가야'에 대한 정체성을 더욱 강하게 여기고 그들 가야 소국들과 서로 밀접하게 교류하였던 집단으로 파악된다.

이제 당시인들의 '가야'란 정체성 인식에 대하여 약간의 부언을 해두고자 한다. 최근 행해졌던 한 학술대회에서 대가야의 발전 단계에 대하여 주로 문헌사학의 입장에서 '단일연맹체설' '지역연맹체설' '고대국가론' '부체제' '지역국가론' 등등 다양한 인식론이 제기된 것으로 안다[33].

필자는 이에 대해 '분절국가론'을 제기하고 있다. 김해와 부산의 전기가야 연맹이 해체되고 낙동강을 따라 후기가야의 각 소국이 성립한다. 그런데 이들 후기가야의 '아라' '비화' '다라' '가라' 및 '소가야'는 제각기 독자의 권역을 점하고 독자의 고유 장법을 유지하면서 각자의 수장권, 제의권, 외교권을 행사하며 정립한다[34].

그들 간에는 세력의 크고 작음도 인정된다. 하지만 서로 교류하면서도 상호불가침의 원칙을 지키며 세력 균형을 유지하였다[35]. 그러면서

33) 대가야박물관, 『쟁점 대가야사 대가야의 국가발전 단계』, 2017.

34) 상징적 존재가 되어버린 김해의 금관국(狗耶)이나 지금까지 논해왔던 부산의 거칠산국(瀆盧)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35) 대가야가 서쪽으로 방향을 잡아 지리산을 넘어 세를 확장해간 것이 이러한 정립 관계 때문이다. 한편, 소위 고령식토기를 통해 대가야권역을 파악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오랜 논리는 합당하지 않다. <도 4>를 참조하면 알 수 있듯이, 정립 관계의 중핵인 다라국이 고령토기를 채용한 점, 대규모 고분군을 영위하였지만 후기가야 시기 함안토기의 분포범위가 협소한 점, 6세기에 중추세력이 고성에 자리를 잡게 되나 그 이전부터 남강 일대를 중심으로 서부경남에 널리 산재했던 소가야(사천-고성식)의 토기분포가 매우 넓은 점, 대가야와 소가야의 토기분포가 많이 겹쳐 있는 점 등을 설명하지 못하고서는 고령토기 중심의 일방적 '대가야론'은 성립하기 힘들 것이다.

대외적 사안에서는 함께 힘을 모으는 철저한 분절적 체계를 이루었다. 그것이 가능하였던 것이 다양한 경로는 있지만 그들이, 아니 그들의 조상이 애초 전기가야 때부터 서로 유대적 관계를 가졌다는 인식을 공유했기 때문이다. 그 인식에서 '加耶'란 이름 아래 하나가 될 수 있었다고 본다.

끝으로 본고를 작성하는데 있어 자료정리를 도와준 전성보군에게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 참고문헌 |

1. 발굴조사 보고서

福泉博物館,『釜山蓮山洞遺蹟』, 2003.
釜山博物館,『東萊福泉洞53號墳』, 1992.
_____,『蓮山洞古墳群 - 고총고분 기초조사』, 2012.
_____,『蓮山洞古墳群 - 연제체육공원 조성부지 조사』, 2012.
_____,『蓮山洞 M3號墳-연산동 고총고분군 2차 조사』, 2014.
_____,『蓮山洞 M7·M10號墳-연산동 고총고분군 3차 조사』, 2014.
_____,『蓮山洞 高塚古墳群 周邊 遺構-연산동 고총고분군 2차 조사』, 2014.
釜山博物館·慶星大學校博物館,『蓮山洞 M8號墳-1987년도 조사』, 2014.
송계현,「東萊 蓮山洞古墳群 收拾遺構 調査報告」『博物館硏究論文集』, 1993.
申敬澈,「釜山 蓮山洞 8號墳 發掘調査槪報」『釜山廣域市立博物館 年報』 10輯, 1987.
安春培,「釜山 蓮山洞 4號墳 發掘調査報告」『釜山女大史學』 제6·7합집, 1989.
우리문화재연구원,『부산 연제구 연산동 공동주택 예정부지 내 유적』, 2009.

2. 연산동고분군 관련 학술대회 발표문

杲山文化財團,『가야제국의 존재형태와 연산동고분군』 제2회 학술세미나, 2013.
김세기,「고분자료로 본 가야제국의 존재형태와 연산동고분군」

백승옥,「가야제국의 존재형태와 '지역국가론'」
홍보식,「연산동고분군 조사 성과」
부산대학교박물관,『연산동고분군의 의의와 평가』국제학술심포지엄, 2013.
권오영,「삼국시대 거대 토목건조물의 축조기술-성과 제방을 중심으로」
김두철,「연산동고분군과 복천동고분군」
심현철,「신라·가야 고총고분의 축조기술」
홍보식,「蓮山洞古墳群의 調査 成果와 高塚古墳 築造 技術」
羅豊,「山陵에서의 不封不樹의 중요성-北朝 무덤 봉토의 변화」
青木敬,「日本古墳の墳丘築造技術とその系統」
부산대학교박물관,『연산동 고총고분과 그 피장자들』학술심포지엄, 2016.
김두철,「고총고분시대의 연산동고분군」
김용성,「연산동 고총의 성격」
선석열,「신라의 지방통치과정과 연산동고분군」
홍보식,「고분 구축기술로 본 연산동 고총고분」

3. 저서 및 논문

국립문화재연구소,『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오구라 컬렉션 한국문화재』, 2005.
국외소재문화재재단,『오구라 컬렉션 일본에 있는 우리문화재』, 사회평론아카데미, 2014.
金斗喆,「부산지역 고분문화의 추이 -가야에서 신라로-」『항도부산』19, 2003.
_____,「前期加耶와 新羅」『부산대학교 고고학과 창설20주년 기념논문집』, 2010a.
_____,「棺床과 前期加耶의 墓制」『韓國考古學報』75, 2010b.
_____,「皇南大塚 南墳과 新羅古墳의 編年」『韓國考古學報』80, 2011.
_____,「加耶 轉換期의 墓制와 繼承關係」『考古廣場』13, 2013b.
_____,「신라·가야의 경계로서 경주와 부산」『嶺南考古學』70, 2014.
_____,「高塚古墳時代의 蓮山洞古墳群」『考古廣場』19, 2016.
金榮珉,「연산동고분군의 특질과 의미」『港都釜山』31, 2014.
金元龍,『新羅土器의 硏究』국립박물관총서 甲 제4, 을유문화사, 1960.
박정욱,「축조양상으로 본 연산동 고총고분의 성격과 특징」『부산박물관 연구논집』20, 2014.
申敬澈,「新羅土器의 發生에 對하여」『韓日古代文化의 諸問題』, 1986.
_____,「三韓·三國·統一新羅時代의 釜山」『釜山市史』제1권, 부산시사편찬위원회,

1989.
_____,「金海大成洞·東萊福泉洞古墳群 點描」『釜大史學』 19, 1995.
_____,「三韓·三國時代의 東萊」『東萊區誌』, 부산시 동래구, 1995.
_____,「日本 初期 須惠器의 發現」『東아시아 속의 韓·日 關係』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97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1997.
신동조·박정욱,「부산 연산동 고총고분군의 조사 방법과 축조 기술」『삼국시대 고총고분 축조기술』, 진인진, 2013.
李盛周,「洛東江東岸樣式土器에 대하여」『제2회 영남고고학회학술발표회 발표 및 토론요지』, 1993
李熙濬,「김해 禮安里 유적과 新羅의 낙동강 西岸 진출」『韓國考古學報』 39, 1998.
_____,『4~5세기 新羅의 考古學的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_____,『신라고고학연구』, 사회평론, 2007.
정징원·홍보식,「釜山地域의 古墳文化」『釜大史學』 18, 1994.
朱甫暾,「4~5세기 釜山地域의 政治的 向方」『복천동고분군의 재조명』 부산광역시립복천박물관, 1997.
홍보식,「고총고분의 봉분 조사 방법과 축조 기술」『삼국시대 고총고분 축조기술』, 진인진, 2013.

東京國立博物館,『小倉コレクション』, 1982.
末松保和,「新羅建國考」『新羅の政治と社會』 上, 1995.
末永雅雄,『增補 日本上代の甲冑』, 木耳社, 1981.
穴澤咊光·馬目順一,「南部朝鮮出土の鐵製鋲留甲冑」『朝鮮學報』 76, 1975.

투고일: 2017.06.20. **심사완료일:** 2017.07.04. **게재확정일:** 2017.07.20.

| Abstract |

The Yeonsandong Ancient Tombs and Ancient Busan

Kim, Doo-Chul

The Yeonsandong Tombs is the only ancient tombs with gigantic mounds in Busan as the graveyard moved to this area because of lack of graveyard of leaders of the Bokcheondong Tombs when the ancient tomb with a gigantic mound appeared in Gaya area influenced by the great tomb of Hwangnan.

It is very unique in producting mound and it inherits and develops the burial facility of the Bokcheondong tombs, so it is thought as the tombs that inherits the chief authority of the Bokcheondong tombs. The buried leaders have its roots in armed power like the Bokcheon tombs or the Okjeon tombs.

It is considered that Busan was already subjugated to Silla in the middle of 4th century, however, this viewpoint should be wrong. According to the archaeological evidence, Busan constituted the core of the former Gaya with Gimhae in the 4th century. After a conquest of Gogurye in 400 A.D, as supremacy of Yeongnam area moved to Silla(Gyeongju), Busan lost its strength. However, as the local independent group, the ancient tombs with gigantic mounds were still pructucted in Busan. If the ancient tombs with gigantic mounds were still built, it must be thought to maintain its independent authority.

According to the distribution sphere of the symbol burials of chief class such as an armor and an harness, they exchanged with Silla and closely related to small countries of Gaya. They shared strong identity and

homogeneity as a member of “Gaya”.

Keyword: Yeonsandong Tombs, Bokcheondong Tombs, ancinet tomb with a gigantic mound, Gaya, Silla, centre and periphery, segmentrary state, local chief authority